

NATO 국방비 상향 조정 가시화 K-방산, ‘6월 수출 러시’ 기대감

회원국, GDP 5% 국방비 상향 논의
증액 시 무기 수요만 300조 규모
한화·HD, 美·EU MRO 계약 잇따라
LIG, 英업체와 함정사업 협력 체결

국내방산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방침에 시장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K-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현지화 생산과 유지보수(MRO)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어 6월 이후 수출 계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국방비 목표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32개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목표는 GDP 대비 2% 수준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최소 3%, 많게는 5%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가 1%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약 1000조원의 추가 국방 예산이 발생하며, 이 중 무기 획득 예산(약 30%)만 따져도 300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수요가 창출된다.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 5%(현재 약 2%)를 확보할 경우, 연간 최대 23조원 규모의 추가 매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 방식을 기존의 직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현지화 생산·MRO·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수출 시장 또한 유럽을 넘어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특히 함정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조선·방산 기업들도 MRO 사업 진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MRO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함정에 적용되는 기술과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유지보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미군 함정 MRO 파트너로 지목한 점도 산업 전반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에서는 주요 방산 기업들이 MRO 시장 진출과 글로벌 전략을 대거 공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의 USNS 윌리 쉬라호 및 유콘 함정에 대한 MRO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조선사 최초로 미군 함정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선급 기관인 로이드 선급과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해외 함정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협력도 강화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미국 함정 MRO 수주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포르투갈 해군과 MOU를 체결하며, 함정 건조 및 MRO 분야에서 전략적 파

트너십을 맺었다. LIG넥스원 역시 MADEX 현장에서 영국 방산업체 밥콕 마린(Babcock Marine)과 협력해 함정 신규 건조 및 MRO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은 전자, 장갑차, 포병, 전투기 등 대부분의 무기 체계에서 러시아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6월 이후 수출 계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운 연구원은 “이달 한국과 폴란드 대선, NATO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그간 지연됐던 수출 계약들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글로벌화의 초입에서 있으며, 본격적인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美 ‘10대 위한 최고車’ 수상

신차·중고차 부문서 7개 부문 석권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경제성 입증과 함께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 수상까지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사 주간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주관하는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에서 자동차 그룹 기준 최다 선정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 부문 8개 중 4개, 중고차 부문 4개 중 3개 등 총 12개 중 7개 부문에 선정됐다.

현대차는 신차 부문에서 아반떼(현 지명 엘란트라)가 ‘2만5000~3만달러 가격대 최고의 자동차’, 투싼이 ‘2만5000~3만달러 가격대 최고의 SUV’, 투싼 하이브리드가 ‘3만~3만5000달러 가격대 최고의 SUV’로 선정됐다.

이어 기아는 쏘울이 ‘2만~2만5000달러 가격대 최고의 SUV’로 뽑혔다. 특히 현대차 투싼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신차 부문 ‘2만5000~3만달러 가격대 최고의 SUV’로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10대를 위한



현대차 투싼.

최고의 차량 수상은 생애 첫 차 고객의 긍정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충성도 높은 잠재 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은 신차 부문에서는 차량 ▲신뢰도 ▲충돌 안전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업계 전문가들의 호평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라비시 보일(Olabisi Boyle) 현대차 북미법인 상품기획 및 모빌리티 전략 부문 전무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사양 비교를 넘어 신뢰를 의미한다”며 “10대는 스타일, 기술, 자유를 원하고 부모는 안전과 신뢰성을 원하는데 현대차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킨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신뢰할 수 있는 AI 만든다”

AI안전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개발 단계부터 윤리·안전성 검증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LG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 AI안전연구소와 ‘글로벌 AI 규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AI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고, 세계 주요국의 AI 규제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 등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에 맞춰, AI안전연구소와 함께 정책 대응과 공동 연구를 이어간다. AI 위험도 평가, 규제 분석, 안전 가이드라인 마

련 등 전방위적 협력이 추진된다.

LG전자는 전사 AI 전략과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AI사무국’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이 조직은 AI 기술 개발 단계부터 윤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관리하며, AI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기준도 세우고 있다.

LG전자는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 ‘책임있는 AI 정책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다섯 가지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제품 기획부터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서 국제 기준 이상의 책임 있는 AI 구현을 목표로 한다.

보안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독자 보안 시스템 ‘LG윌드’를 통해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호한다.

/이혜민 기자 hyem@

두산에너지빌, 정치 변수 속 체코원전 공략

프랑스 가처분 인용에 계약 연기
26조 규모 ‘팀코리아’ 수주 도전
EPC 고정가 논란, 저가부담 여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대형 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 터빈 등 수주 잔고 확대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둘러싼 긍정적 영향도 기대되지만 저가 수주 논란과 계약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체코 수주전이 정치적 성과와 수익성 사이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신규원전 투자액은 최소 7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 대우건설, 한전기술 등과 함께 ‘팀코리아’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적극적이다.

지난 5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

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애초 체코 원전 계약이 연기되면서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체코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와 ‘팀코리아’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실제 무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따른다.

다만 사업 리스크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가격을 낮추는 대신 수주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면서 최종 낙찰가가 업계 추정 원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체코 수주전에서 ‘팀코리아’의 총 사업규모는 약 26조원으로 지난 2009년 UAE 원전 수주 당시 국내 공사 가격인 400억달러(당시 약 47조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전략은 해외 경쟁업체의 견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프랑스 EDF는 계약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

는데 이는 한국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방식에도 부담 요인이 존재한다. 한수원이 체결한 계약은 설계, 조달, 시공을 모두 포함하는 EPC 고정가 계약으로 원가 상승이나 공사 지연이 발생해도 해당 비용을 한수원이 떠안아야 한다. EU의 규제 강화,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체코 신규 원전의 가격이 1기당 12조원, 2기 24조원으로 국내 원전 건설비용인 8조~9조원과 국제 시세로 추정되는 11조원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건설 단가가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체코 원전 4기의 수주 금액이 약 30조원대로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주 금액이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매직, 초소형 플러스 직수 정수기 선포

기존 자사 제품대비 크기 60% 축소

SK매직이 성능과 디자인을 대폭 강화한 ‘초소형 플러스 직수 정수기’를 출시했다.

3일 SK매직에 따르면 신제품은 폭 164mm, 깊이 395mm, 높이 345mm 크기로,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약 60% 수준까지 부피를 줄여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성인 손 한 뼁 크기의 작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좁아 정수기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은 물론 1~2인 가구, 신혼부부,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색상은 ▲내추럴 화이트 ▲뉴트럴 실버 두 가지로 구성했다. 직관적인 고

급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물이 흐르는 유로는 오염과 부식, 세균에 강한 ‘올(ALL)-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해 약 100℃의 고온수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 최초로 ‘스테인리스 진공 시스템’을 적용해 위생성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잡았다. 진공 단열 구조를 통해 제품 크기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은 최대 50%까지 절감했으며, 냉각 시스템 내부까지 스테인리스를 적용해 위생성을 강화했다. 제품 설계 전반에 친환경 요소를 적극 반영해 기존 제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 18% 절감하고, 스티로폼(EPS) 사용도 최대 96%까지 줄였다.

/김승호 기자 bada@